문화광장

포맷 바이블(Format Bible)과 사유(思惟)

홍 정 호
한국관악협회 제주지회장

공연장상주단체 지원사업이 제주에는 적합지 않다는 의견에 반대한다. 이 사업의 원래 취지가 공연장 가동률 높이고 공연장의 인지도 향상과 지역민 문화향유기획를 확대하고자 공연장과 예술단체가 함께 협력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공연장상주단체 지원사업의 목적에 비춰 그 성과를 증명해내고 있는 공간이 바로 김정문화회관이다.

초심으로의 회기, 극적인 변화, 이면의 노력. 이렇게 평가하고 싶다. 몇 년 전,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지원으로 공연장 상주단체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공연장은 김정문화회관이었다. 그때의 김정문화회관은 서귀포 예술의 전당 개관 이후 예술의 현장성과 기능을 잃어버린 처참한 모습이었다. 몇 년의 시간이 흐른 후, 지난 토요일 공연장 상주단체 전문평가위원으로 김정문화회관을 다녀왔다. '토요일 토요일은 클래식 아트페스티벌'이 2021 김정문화회괴관 기획공연 시리즈로 진행되고 있었다. 생동감 넘치는 공연현장을 마주했다. 문화인프라의 가치와 역할을 충분하게 잘 드러내고 있었다.

일반인이 포맷 바이블(Format Bible)을 볼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다. 그 결과물을 마주할 뿐이다. 미스트롯, 골목식당, 강철부대, 슈퍼스타K, 위대한 탄생 등 예능프로그램의 이면에 바로 포맷 바이블이 있다. 포맷 바이블은 방송용어이며, 프로그램이 지향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 이상적인 편성 시간, 프로그램의 내용과 구조는 물론, 무대 디자인에서부터 프로그램 그래픽, 음악 등 모든 가이드라인과 프로그램 관련 요소가 정리돼 있는 제작 매뉴얼을 뜻한다. 한류의 수출이라고 하면 바로 이 포맷 바이블이 수출됐음을 뜻한다.

포맷 바이블에서 하지 말아야 될 항목도 있다. 다른 프로그램으로부터 아이디어와 요소를 참고해 개발된 것이 확인될 경우 바이블제작과 해외 세일즈를 즉시 포기할 것을 권하고 있다. 표절 때문이다. 표절시비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브랜드의 문제이며 다른사람의 창의성과 사유(思惟)를 훔치는 일이다. 가장 좋은 것은 포맷을 만들지 않는 것이라고 말할 만큼 표절은 심각한 상황을 초래한다.

주례사비평에 기준을 둬 제주체임버오케스트라와 김정문화회관을 말하고자 하기에도 그들의 진실한 노력을 설명하기가 부족하다. 양적인 팽장이 선행될 때 질적인 도약이 일어난다는 양질의 법칙을 증명이라도 하듯 행정과 기관 그리고 예술가가 함께 노력하고 있는 현장이다. 관객의 마음을 두드리고, 마음을 얻을 수 있는 포맷 바이블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으며 또한 구현해 내고 있었다.

더 이상 업데이트가 필요 없음은 사유의 멈춤과도 같다. 포맷 바이블의 특징은 완성형이 아니라 진행형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두꺼워진다. 업데이트 해야하기 때문이다. 나태와 안일함에 젖어 정형화된 프로그램, 더 이상 업데이트 할 것이 없는, 생각이 정지된 예술은 있을 수 없다. 사유의 멈춤과 예술은 같이 공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글과 의견을 들어 사유의 멈춤이 없기를 바란다고 조언하는 중요무형문화재 피리정악, 대취타 전수자 고보윤 선배의 말이 나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기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라는 날이다.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함 또한 잊지 않으리라.

사설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추석연휴가 고비다

제주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추석 연휴까지 가장 높은 단계를 유지한다. 예상한대로다. 방역당국의 고민을 모르지 않는다. 민족이 대이동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방역에 신경쓰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추석 연휴 제주기점 항공권도 대부분 마감되는 등 많은 인파가 제주를 찾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래도 추석 연휴 사적모임 기준과 식당·카페 영업시간 제한 기준 등이 일부 완화됐다. 비록 최근 신규 확진자가 크게 줄어들고 있지만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된다.

제주도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6일부터 22일까지 2주 더 연장했다. 다만 사적모임 기준과 카페·식당 영업시간 제한 기준 등 일부 방역조치는 다소 완화된다. 카페·식당 등의 객장 내 영업 가능 시간을 밤 9시에서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한 것이다. 또 사적모임 기준도 풀어줬다. 오후 6시 이전까지 접종완료자 2명을 포함해 최대 6명까지, 오후 6시 이후부터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6명까지 모일 수 있다. 특히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1주일간 한시적으로 가정 내 가족모임 인원을 접종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8인까지 허용했다.

이번 추석 연휴가 코로나19 확산의 큰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도 이달 들어 코로나19 감소세가 확연하다. 지난달 28일부터 신규 확진자가 10명대로 줄어든 이후 3일부터 사흘째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때문에 자칫 방심하기 쉬운 추석 연휴가 중대한 변곡점이 될 우려가 높다. 델타변이바이러스가 급속도로 번지는 상황에서 귀성객과 관광객 등 대규모 이동이 예상되고 있어서다. 지역감염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온도민이 방역 주체가 돼야 한다. 방역당국도 오죽하면 한가위 대명절에 고향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호소하겠는가.

소상인 경기 최악, 도정 '무답'이 답인가

상인 생존권이 최악의 위기로 치달으며 집단적 불만 표출로 이어지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생존권에 위기를 넘어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목소리다. 상인마다 "다 죽는다"고 아우성일만큼 절박하다. 도정이 언제까지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영업제한이란 지침발표만 해선 안된다.

외식업중앙회 도지회가 지난 3일 도청 행정시청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로 상황의 엄중함을 알리고 나섰다. 1년 넘는 영업제한으로 절박한 생존권 위기를 참다 못해 거리로 나선 것이다. 대부분 영세상인 외식업소들이 장기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방역지침으로 생업을 포기해야 할 참담한 상황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소상인들의 생존위기는 지난달 18일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다 이달 22일까지 다시 연장되면서 치명상을 입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벼랑끝인데 추석대목도 기대 못할 현실에 맞닥뜨렸고, 결국 영업제한을 되풀이하는 정책에 불만을 표출하는 지경이다.

소상인들 어려움은 최근 체감경기가 사상 최악이라는 조사치서도 쉽게 알 수 있다. 8월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BSI)는 26.3으로 7월 30보다 3.7포인트(p) 하락했다. 2011년 관련통계 작성 이래 두달 연속 역대 최저치다. 9월 전망 BSI도 두 달 연속 역대 최저인데다 전국 17개 시·도 중 제주만 유일하게 떨어졌다.

도정이 코로나19 방역에 올인할 수 밖에 없지만 생존기로에 선 상인들의 외마디 절규도 간과해선 안된다. 소상인들의 고통이 시한폭탄처럼 터지기 직전 상황이다. 기존 손실보상·영업제한 완화 등 자치단체 차원의 대책들을 다시 다듬고, 상인 의견수렴과 새로운 시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벼랑끝에 선 소상인들이 다시 제 발로 설 수 있어야 지역사회도 다시 나아갈 수 있다.

열린마당

벌초 철 안전하게 보내세요

고 민 수
서귀포소방서 중문119센터

폭염이 한풀 누그러지고 바람이 선선해지면서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벌초나 성묘를 위에 산에 오르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각종 안전사고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

벌초 시 많이 발생하는 사고는 대표적으로 예초기 관련 사고, 벌 쏘임 사고, 뱀 물림 사고가 있다. 이와 같이 자주 발생하는 안전사고 사례와 응급처치 요령을 미리 숙지해 작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예초기 사용 시에는 보호장비를 철저하게 착용해 작업해야 한다. 주변 사람들도 작업 반경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야하며 예초기 사용 전에는 반드시 보호 덮개를 사용해야 한다. 만약 예초기로 인해 피부 등이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깨끗한 수건이나 천으로 감싸줘야한다.

둘째, 벌초하러 갈 때는 벌을 자극할 수 있는 밝은 색 계통의 옷이나 향이 진한 향수 사용을 피하고 만약 벌에 쏘였을 시 손톱보다 신용카드 등으로 피부를 밀어 뽑아내는 것이 좋다. 벌에 쏘여 알레르기 쇼크가 왔을 경우에는 1시간 이내에 가까운 병원을 찾아 치료 및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것이 뱀에 물리는 사고다.

뱀은 가을철이 되면 독성이 매우 강해지고 자기 방어를 위해 공격을 하기 때문에 잡초가 많아 길이 잘 보이지 않을 때 항상 지팡이나 장대로 안전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뱀에 물렸을 경우에는 상처를 심장보다 낮게 해야 한다.

모두가 벌초 시 조금만 주의해 안전사고를 예방해 풍족한 추석을 보내기 바란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국민지원금 민원, 신속·정확히 응대"

구 권한대행 도민 신뢰 강조

○…구만섭 권한대행이 6일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신청 민원을 공직자들이 신속·정확하게 응대해 신뢰를 쌓으라고 강조.

구 권한대행은 이날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주간정책 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당부.

구 권한대행은 "공직자들이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 응대를 통해 도민들의 신뢰를 형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제주형 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도 추석 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 이상민기자

재난지원금 신청 앱 한때 먹통

○…재난지원금 신청 첫날인 6일 오전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신용카드사 모바일 앱과 홈페이지 접속이 원활하지 않아 불편.

이 날 신청 대상자는 요일별 5부제에 따라 출생년도 끝자리가 1과 6으로 끝나는 이들이었는데, 카드사 앱은 물론 제주지역화폐인 '탐나는전' 앱도 오전 한때 연결 오류 현상이 발생.

도민들은 "추석을 앞두고 돈 쓸 곳이 많으니 빨리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려는 것 같다"며 "먹통이던 카드사와 탐나는 전 앱은 시간이 지나면서 정상화됐다"고 언급. 문미숙기자

"교육회복 뒷전" 일침

○…제주도교육청이 편성한 올해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추경 배분의 적절성 문제를 질타.

6일 열린 회의에서 이승아·김희현·강성민 의원 등은 시설사업에 편중된 예산을 꼬집으며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습결손 해결 및 과밀학급 해소에 대한 의지 부족 등 교육회복을 위한 예산 편성 미흡을 지적.

박주용 부교육감은 "올해 본예산과 1차추경 통해 학습결손과 회복 위해 상당부분 이미 투자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 오은지기자

부 고

양치영 아버지 제주양공 석하(前 제주특별자치도 서울본부장 · 향년 64세)께서 서기 2021년 9월 6일 00시 9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 2021년 9월 7일(화요일)
▶발인일시 : 2021년 9월 8일(수요일) 오전 6시
▶발인장소 : 부민장례식장 10빈소
▶장 지 : 양지공원 → 용강 선영

부 인 허순하
아 들 양치영 며느리 김명임
딸 양진영 사 위 김남훈

※ 연락처 : 허순하 010-6877-7202
양치영 010-6860-7202
김명임 010-7644-0104
양진영 010-7124-7202
김남훈 010-2692-8212

재산상속 한정승인 공고

• 성 명 : 망 강복례 (1949. 01. 10. 생)
• 최후주소 : 서귀포시 월라봉로17-2 (신효동)

상기자는 2021년 1월 1일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들은 2021년 7월 28일 제주지방법원 2021느단10124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수리 받았습니다.

이에 민법 제10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채권자와 수증자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는 자는 청산에서 제외됨을 최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기간 : 본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2. 연 락 처 : 평택시 청북읍 청원로 380-15, 304호(어연리)

2021년 9월 7일

공고인(상속한정승인자) 김나연, 김태호

방수 단열
우레탄
우 레 아
방수전문건설업
석 주 개 발
☎ 712-3644, 782-3644
010-4690-3636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모든품종 감귤(묘) 분양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유라 5년생 화분·하례조생

- 윈터프린스
- 황금향 • 레드향
- 천혜향 • 하례조생
- 미니향·레몬
- 탐라향 5년생(화분)
- 궁천 • 일남일호
- 유라(1~5년생)
- 천전(가와다) 조생

※ 신품종 다수보유

서 귀 종 묘
064-733-7005, 010-6677-5753

감귤묘목
아스미 4, 5년생

당 17.4브릭스 산 1.0인 최고 품질의 **아스미**는 소득이 월등합니다. 수확량이 많고 해거리가 거의 없으며, 판매단가가 높습니다. **아스미**는 이제 시작단계로서, 그 앞길이 창창합니다. 일본의 품종보호 신청일은 2018년 1월 15일인데, 석파농산은 그 이전에 생산판매허가를 받고 생산한 4,5년생을 판매하므로, 로얄티 등 일본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의 바랍니다.

※ 유라실생 하우스 귤 많은 견학바랍니다.

·유라조생	1, 2년생	·하귤	4, 8년생
·천혜향	1, 4년생	·궁천	3, 5년생
·레드향(무독)	1, 4년생	·궁천 변이지(오하라베니)	2, 3년생
·하례조생	3년생	·레몬	3년생
·고림조생	5년생	·황금향	1, 2년생
·한라봉	1, 2년생	·그외 다수품종	

최대규모, 최고경력, 건실육묘 35년
석파농산
농장위치 :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1-1번지
종자업등록번호제주 18-2003-20-08
010-2699-2355